

# 국어교육에서 바뀌어져야 할 용어들\*

## 최 주 일

### I.

1.1. 필자는 평소 우리의 교육 현장이나 국어 교육에서 用語[또는 명칭]의 뜻과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시되거나 잘못된 용어들이 많음을 보아 왔다.<sup>1)</sup> 우리의 국어교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우리들이 사용해 온 용어들 중에서도 특히, 日本 軍國主義 時代に 일본이 이 땅을 統治·支配하기 위해, 소위 日帝 植民地 時代に 일본인들이 왜곡, 날조, 은폐하여 만든 日本式 용어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자 한다.

---

\* 이 글은 국어학회 제13회 공동연구회(1987. 1.16--18)에서 '바뀌어져야 할 용어들'이란 제목으로 구두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미 2회에 걸쳐 '國語教育에서 改正되어져야 할 用語들[I·II]'로 발표한 두 편을 여기에 다시 간추려 보충·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이러한 용어 사용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어학 제13집에서 공동 토론으로 다룬 '국어학의 용어 문제'(1984. 12.30)을 읽고 난 후부터다. 그러다가 1986. 11. 30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신청을 한 뒤 원고 성리를 하다가 우연히 呂增東 교수의 '한국역사용어'란 책을 서점에서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필자가 그간 조사해 온 것과 비교롭게도 심통한 점이 많았다. 어찌보면 이 책을 통해서 필자가 조사해 온 내용을 확인한 셈이 된다. 이 자리를 빌어 呂增東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나라가 光復된 지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한 倭色에 물든 일본식 용어들을 버리지 못하고 慣行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戒律과 압박으로써 우리말을 못 쓰게 하여 일본어만을 常用하도록 강요당하면서, 모든 학문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 군국주의는 우리나라를 통치 지배하면서 이 땅을 빼앗기 위해, 우리 역사를 왜곡·날조·은폐하여 지어낸 일본식 용어들을 쓰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이른바 '조선어 말살 정책'을 자행하면서 일본말을 우리 땅에서 국어로 常用하도록, 소위 일제 식민지 정책의 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탓이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本稿에서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용어는 바로 그때 일본인들이 왜곡 날조한 즉,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인 殘滓의 용어들이다. 이른바 日帝植民地 時代의 남은 찌꺼기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殘滓들을 拂拭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본식 용어들은 현재 우리 국어교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마땅히 추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역사와 국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이같이 왜곡·날조된 용어들은 마땅히 우리식의 말(용어)로 바꾸어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2. 인간의 언어 생활에서 한 개인이나 그 나라 국민이 어떤 말(용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개인이나 국민의 정신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언어가 인간의 觀念이나 思考 方式 내지 意識이나 精神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이다.<sup>2)</sup>

그래서 언어는 문화의 遺産이며,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한다. 그리고 언어는 또 감정의 發露이며 思考의 표현이다. 언어가 인간의 思考를 반영하고 그 思考를 잉태시킨 문화의 구조나 형태를 잘 나타내주는 엄밀한 化石이기도 하다. 그

2) 말과 정신, 그리고 말과 인간사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허웅(1981) 언어학, pp. 46~59. 이광래역(1987: 말과 사물(미셀 푸코 지), 민음사. 참조.

러기에 20세기에 들어서서 언어학을 중시하게 된 까닭이 이 점에 있다.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일본식 교육을 받지 않은 토박이 사람[특히 여성들]들에 의해서 日帝의 그 무서운 ‘조선어 말살 정책’의 위기를 극복했던 적이 있다.

자기 나라 말과 글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나라 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 나라 민족의 긍지와 民族魂은 바로 자기 나라 말과 글에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올바른 국어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국어교육에서 그것이 올바르게 실현될 때, 우리의 참된 국어교육에서 우리말이 제대로 꽃피게 될 것이다.

## II.

‘歷史’라고 할 때 ‘歷史’의 ‘史’는 원래 과녁에 적중한 화살의 수를 계산·기록하는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것이 轉義되어 ‘記錄者’가 된 것이라 한다. 역사에서 중요 관건이 되는 것은 역사가 어떻게 그것을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흔히 역사에서 다루어지는 기록은 그것이 ① 褒貶의 기록이나, ② 歪曲된 기록이나, ③ 사실대로의 기록이나가 중시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사를 보는 사람이나 그를 다루는 사람들의 歷史觀이 때로는 主體性이나 獨自性을 잃거나 歪曲 記述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때로는 문헌에 기록된 하나의 용어[명칭]를 놓고, 그 개념의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여 이해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곤 한다.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든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을 보는[또는 다루는] 주체자(주인)가 누구냐에 따라,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념 규정의 용어가 달리 記述되기도 했다. 특히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는 그 사건을 보는 쪽에서 그 사건과 관련되는 용어를 制定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즈음 사학계에는 日帝 植民地時代의 일본인에 의하여 왜곡된 부분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여기서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사학’이라 함은 한국에 대한 식민주의적 또는 제국주의적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를 왜곡·변조·누락시킨 史筆”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일본인에 의한 한국사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사의 주체를 한국인의 저력이나 의지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 외래적 [또는 외세적] 충격이나 영향을 과대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사의 주체적·자주적 추진력을 卑下하며,

② 일본이 한국의 지배나 침략을 합리화 하기 위한 구실로써 한국인의 심성에 포함된 결함이나 잘못을 침소봉대하거나 장점을 깎아내리거나 은폐·조작하며,

③ 한국사람을 서 광활한 만주 벌판에 뿌리를 둔 한민족으로 보지 않고, 半島의 왜소한 하천이나 강의 문화 민족으로 보기 위하여 국토 疆域上的 위치를 왜곡하거나 만주 일내에 대한 영토적 역사성이나 연고권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키려 하였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는 事例로서, 우리의 교육 현상이나 국어 교육에서 日帝 植民地時代의 日本人에 의하여 왜곡·날조·은폐·美化하여 만든 잘못된 용어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들어 지적하고자 한다.

## 1. ‘韓半島’ 용어 문제

‘韓半島’란 용어의 개념은 한반도의 절반 곧 半 섬이라는 한정된 지정학적 위치를 뜻한다. 이러한 뜻을 갖는 ‘韓半島’란 용어는 일본인이 우리 국토를 광활한 만주벌판(中原지역)을 빼버린 하나의 半島(peninsula)로 보아, “北半部는 異民族인 燕나라 사람 衛滿이 한때 지배하다가 漢武帝가 정복한 후에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 왔고, 南半部는 신라, 백제, 가야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가야에 근거를 둔 任那日本部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는 식으로 우리의 上古史 부분을 왜곡 날조했다. 이러한 역사 기술은 한국인은 예나 지금이나 분열된 민족이며 항상 남의 나라에 지배받아 왔고 통일된 나라를 가질 능력이 없으니 일본이 한국을 植民地化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일본인의 엄청난 역사의 날조, 왜곡, 은폐의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은 우리의 광활한 국토를 좁혀 축소시키려고 하는 데다가 일본이 섬(島) 나라이므로 日本列島에 소속된 하나의 屬國으로 삼으려고 했던 저의가 깔려 있다. 이른바 日帝

植民地時代에 일본인은 우리나라 사람을 '조선장(朝鮮人)', '한도인(半島人)'이라 輕蔑하면서, 우리나라를 감정적으로 卑俗化한 적이 있었다.

우리의 上古史는 <중국대륙+몽고대륙+만주대륙+시베리아대륙+朝鮮+日本列島>에서 전개된 역사이기, 결코 한반도만의 역사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上古史 時代의 우리나라의 국경선은 '압록강-두만강'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淸·日 간의 국경 협정일 뿐이고 일제 식민지시대의 경계선일 뿐이다. 한국과 淸나라 양국 간에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에 세워진 정계비대로 '압록강→토문강→송화강→흑룡강'이 국경선이었으니, '3000리 금수강산'이다. '삼천리 만리'라 하는 만조차 우리의 국토를 흐리게 하는 것들이다. '압록강-두만강'을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하나,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예전의 말이다. 헌법 전문의 '韓半島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규정까지도 日帝 植民地 時代 日本人에 의해 왜곡·탈조된 倭色의 단어들이다. 국경선인 '두만강-압록강'이 아닌 '송화강-흑룡강'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갖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압록강'의 국경선까지도 일본의 식민지정체과 유채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712년 숙종 38년 5월 15일에 淸나라의 烏喇總管 穆克登과 우리나라 접반사 朴權, 군관 李義復, 동역관 金應憲 등이 백두산 꼭대기의 압록강과 토문강의 분수령에서 백두산 꼭대기 동남쪽 4km 떨어진 2000m 되는 지점에 양국의 대표가 합의하여 세운 백두산 정계비가 韓·日 양국의 최초이자 최후의 국경 협정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제멋대로 남의 나라 국경을 '압록강→石乙水→두만강'으로 정했으며 이 얼마나 파렴치한 민행인가? 게다가 기막힌 사실은 이렇게 국경선을 정해 주는 반대급부로서 남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따냈다는 것이다. 이 철도 부설권은 露·日 전쟁 때 1941년 포츠머스(Portsmouth) 조약에서 승인된 것이다. 이리하여 악물하게도 우리의 북방 疆域인 두만강 북쪽의 땅이

3) 이 법은 제정된 大韓民國 憲法 제1章 總綱 제3條에는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疆域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韓半島' 대신 우리말식 용어로 이 규정은 다시 바뀌어져야 한다.

실제로 우리 헌법의 규정안은 일본식 용어가 그대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의 정신의 담긴 우리말식 용어의 헌법이어야 한다.

일본인들에 의하여 잘려 나갔던 것이다.<sup>4)</sup> 그 이후 약 80년간 ‘압록강-두만강’이 우리의 국경선 구실을 하고 있었다. 아마 ‘韓半島’란 용어는 日本이 露·日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때부터 생긴 용어가 아닌가 여겨진다.

원래 우리의 국토는 上古時代에는 저 넓은 만주벌판[中原地域]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 중심이었던 만주벌판을 기준으로 할 때는 결코 우리의 국토를 ‘半島’에 한정시켜 부르는 ‘韓半島’라는 용어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또 그렇게 부르거나 적어서도 안 된다.<sup>5)</sup> 이와 같은 맥락으로 洪以燮 교수는 ‘民族自主史觀의 確立-한국사의 새 觀點-’이란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일찌기 遼河, Altai 山脈, 興安嶺山脈으로 선을 긋는 동쪽 지역, 즉 만주벌에서 활동했고 다시 남으로 따뜻한 半島로 옮겨 와서 살게 된 경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韓國史’하면 그 활동 지역을 꼭 半島에만 한정지으려는 데서 한국사 본연의 모습을 잃기 쉬웠고, 어닌지 半島에만 집착하려는 소극적인 면이 지배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朝鮮이 韓半島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 위만조선이 조선족의 쿠데타로 무너진 뒤 그 곳에 설치된 四郡은 옛 위만조선의 땅을 漢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四郡이 아니라 참·초·음·협이라는 4명의 조선인이 다스리는 평주·해청·추저·날양의 四郡을 소개했고, 이 四郡의 행정 통치 책임자들은 앞의 朝鮮族 4명이라고 했다. 또 그 4군의 위치를 발해 연안에서 산동성까지라 했다. 司馬遷의 史記에 실린 朝鮮列傳에는 ‘遂定朝鮮爲四郡’ [마침내 조선이 평정되어 四郡이 되었다.]이라 하여 4군의 위치를 발해 연안에서 산동성에 이르는 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sup>6)</sup> 어디를 보아도 낙랑, 현도, 임

- 
- 4) 실제 우리가 엄밀히 알고 보면, 우리의 국토는 삼천리 금수강산도 아니고 ‘半島’도 아니다. 그러기에 漢水 以北을 제외한 漢水 以南만을 의미하는 ‘韓國’이라는 國名도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세계지도에서 반도(peninsula)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들처럼 [예, 이탈리아반도, 스키티나비아반도, 말레이반도 등] 꼭 같이 우리나라를 반도국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세계 지도에는 ‘韓半島’라 적혀 있지도 않다.
  - 6) 樸園史話(1675. 숙종 원년)에는 한국 상고사의 구성이 이렇게 적혀 있다. “단

둔, 진번의 소위 漢四郡이라는 이름은 없고, ‘韓半島’란 지명도 안 나온다. 그런데 三國遺事의 古朝鮮條에서는 <都平壤今四京始稱朝鮮>이라 하여 우리 단군의 도읍지가 평양이라 적혀 있다. 일본인들에게 半島史觀의 빌미를 준 것이 우리 前近代 史書의 기록들이다. 지금까지 漢四郡을 떠들던 이는 일본 식민지 사관의 학자 내지 그 신봉자들이었다<sup>7)</sup>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국토 현실을 놓고 생각할 때, 한국의 南北 分斷은 궁극적으로는 일제 침략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南·北韓이 分斷되어 있는 현실을 이용하여 등거리 외교를 펴오고 있다. 1950.6.25. 전쟁 이후 南北韓이 分斷되어 우리 국토가 둘로 갈라졌다. 그 결과 우리의 국토가 좁혀졌는데, 일본은 한국의 統一을 바라기는커녕 영원히 둘로 갈라 놓으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일본은 남북이 통일된 강력한 한국보다 분단된 약한 한국을 더 바랄지도 모른다. (동아일보, 1987.1.22(木). 사설).

그리고, 한국 분단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서 愼鏞廈 교수는 ‘解放前後 韓國人の 歷史意識’이란 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① 한국 분단의 제1차적 원인과 책임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처리과정에서 한국을 남북으로 분단하여 점령하기로 하고 일단 38°선으로 분단했으며, 戰後에는 분단된 반쪽식의 한국을 그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한 美·蘇 列強의 분단 정책에 있다.

② 한국은 1945.8.13. 38°선 확정으로 사실상 분단이 된 것이다. 이 38°선의 확정에 대해서는 종래 두 가지 說이 있는데, ㉠군사적 편의주의說, ㉡얕타 밀약설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대해 신용하 교수는 한국 분단의 원인을 美·蘇 列強의 정치 야합설과 그 일환으로서의 포츠담 밀약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近代史가 식민지시대를 벗어나면서 바로 南北 分斷時代로 빠져들게 된 간접적 원인은 일본의 극악한 식민지 통치에 있고, 직접적 원인은

군시대의 나라가 <區區한 鴨水 이남, 수천리의 地歷만이 아니라 <遼, 滿, 幽, 冀> (<遼寧-河北>)과 나아가서는 <淮, 岱, 冀, 襄> (<山東-山西>)을 포함하는 大帝國이었다.”

그리고 한민족의 기원이 중국 문헌의 <夷-東夷>와 깊이 관련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7) 임승국(1986). 한단고기 번역 주해, pp.346-355. 참조.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에 있었다.

그런데, 필자는 ‘韓半島’란 용어가 일본인이 만들어낸 말임을 1987.2.28(토), 동아일보 9면 기사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아 국내외 1주년 기념 움직임은 보도한 신문이 半島新聞이었다. 한국 상사가협회 우호점씨가 고석집에서 인수, 28일 공개한 半島新聞은 모두 6면으로 가로 26cm, 세로 38cm 크기에 국한문 혼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中略) 이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 島村猛猪, 인쇄인 阿部節治 등 모두 일본인으로 배 있으며, 발행소는 <東京市赤坂區 櫻町三番地 半島新聞社> 발매소는 <京城省光化門通 二百十番地 半島新聞社>로 각각 적혀 있어, 발행은 일본 東京에서 되지만 판매는 서울에서도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을 위해 1917년 국한문혼용의 월간지 <半島時論> 등을 東京에서 창간해 발간했던 일본인 竹內綠之助 등이 이 신문의 실질적인 주원인으로 1919년 3·1운동 직후 이 신문을 창간한 것으로 보인다.” (고딕글자는 필자가 표시한 것임)

이처럼 ‘韓半島’란 용어는 극악한 日帝植民地 통치하에서 日本人이 만들어낸 말이다. 그런데 日本人이 ‘韓半島’란 말을 만든 그들의 속셈[음모, 저의]은 원래 광활한 우리의 국토를 남북 분단으로 둘로 갈라 놓으려는 데다가 우리 국토를 축소시켜 놓으려는 의도가 깃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은 우리의 국토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라일지 모른다.

우리가 아무리 문화적 우수성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선 ‘國力’이라 함은 일차적으로 그 나라의 영토, 인구, 그리고 국민의 우수한 두뇌이다. 세계사에서는 ‘강대국’이라 함은 ‘조밀하지도 않은 인구 밀도로써 1억의 국민을 보유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 세 요소 중 첫번째인 영토를 잃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정책에서 나온 탓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국토의 경계선은 ①송화강-흑룡강에서, ②압록강-두만강으로 되고, ③1945.8.13.에 현재의 38°선으로 갈라진 셈이 된다. 원래의 광활한 우리 국토가 오늘날 38°선으로 갈라진 좁은 국토로 되었으니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우리의 국토 疆域을 ‘半島’라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난 잘못이지만, 우리는 결코 ‘半島人’이 아니라고 하는 自我 확인이나 역사의식 내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국토는 결코 ‘삼천리 반도’가 아니며, ‘韓半島’라는 용어가 우리 국토 영역의 대명사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 ‘韓半島’란 말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란 語辭가 들어가는 다음의 말들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
|----------|------------|
| ○韓半島 정책  | ○韓半島 分斷    |
| ○大韓半島 정책 | ○韓半島 침략    |
| ○朝鮮半島    | ○朝鮮半島 지도 등 |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國土 領域을 무어라 지칭해야 옳은가?

1948년 7월 국회에서 ‘大韓民國’이란 國號가 처음으로 상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韓半島’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大韓民國’이라는 國號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南北韓이 分斷된 현실을 꼭 區別하여 지칭하고자 할 경우는 ‘南韓’ 또는 ‘北韓’으로 부를 것이지, ‘南北韓 分斷’, ‘韓半島 分斷’ 등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sup>8)</sup>

韓半島, 朝鮮半島(the Korean Peninsula) → 大韓民國(Korea)

## 2. ‘檀君神話’에 관한 용어 문제

우리 한국인은 ‘檀君’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우리의 고유한 언어·종교·풍속·신앙·전설 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檀君의 역사를 알기 위하여, 먼저 東國史略의 古記를 보면, “동방에 처음 임금이 없더니, 한얼사람(檀人~天人~神人~仙人~神仙人=倭)이 太白山 檀나무 아래에 내려오시거늘, 나라 사람들이 세워(뽐아서) 임금을 삼으니 이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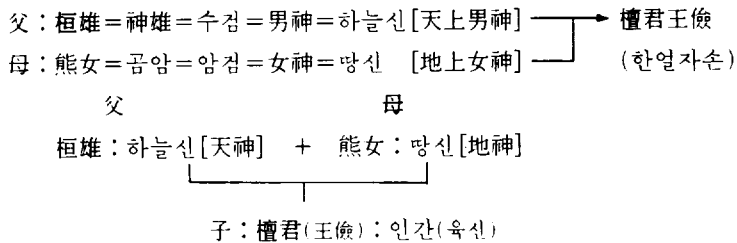
8) 영국은 독일의 경우 서독(West Germany)과 동독(East Germany)으로 부르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의 國號 명칭을 보면 고조선에서 조선왕조까지는 ‘朝鮮’으로 불렸으며, 1948년 7월 국회에서 ‘大韓民國’이란 國號를 처음으로 정하였다.

참고로 ‘日本’이란 國號는 669년에 생겼고, 그 이전에는 ‘倭’로 적었던 것이다. (예, 倭國, 倭人 등).

이 檀君이 되시다[國人立以爲君, 奉爲君]”로 적혀 있다. 마침내 한얼사람, 곧 <한배>로서 임금인 되신 까닭에, 그 분이 한얼사람 임금인 <한배검>이요, 한배로서 檀國[배달나라]의 임금이 되신 까닭에 그 분이 檀君[배달임금]이요, 이 두 말을 합쳐 檀君王儉[배달임금]이라 한다. 우리말 <배달임금>을 옛적엔 漢字로 <檀君王儉>으로 적고, 또 이것을 떼어서 간단히 檀君, 또는 王儉이라 적게 되었다.<sup>9)</sup>

우리의 檀君王儉은 하늘신[天上男神]을 아버지로, 땅신[地上女神]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나신 한얼사람 檀君[한배]이다. 이를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桓(한)과 雄(곰)은 天地의 대칭이요,

桓雄과 熊女는 바로 男女의 대칭을 이룬다.

이리하여 檀君王儉의 탄생에 대해 神異說 혹은 神話가 생긴 것이다. 전세계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들이 그들의 조상, 임금 및 위인들에 관해선 여러 가지의 神異說이 붙음이 보통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옛 역사는 대체로 祭政一致, 教政一致의 시대를 거쳤으며, 또 國家 起源의 神異說, 神意說 [Theologische. Theorie]이 생겨났다.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등과 고구려, 신라, 가야 등의 始祖 그리고 老子, 석가, 예수 중에 신화가 안 붙은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實存을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檀君王儉도 실재 인물이지 그냥 神話上의 人物이 아닌 것이다. 단군왕검이 신화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임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는 다음의 기록이다. 단군왕검께서 한얼님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크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9) 安浩相(1967), 檀君王儉의 來歷과 그 理念, 현대문학 통권 155호(1967년 11월호), pp. 128-130. 참조.

위하여 三神山인 太白山[三危, 太白]에 처음 [아사:阿斯] 나라를 세우고 宗教를 창설했으며, 나라 이름을 <朝鮮>이라 하였는데, 그 해가 중국 堯임금 戊辰年 25년 곧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이다.<sup>10)</sup>

그리고 檀君王儉께서는 93년 [단기 1~93, 서기전 2333~2241]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教化를 펴시다가 만아드님 扶婁에게 王位를 물려주시고, 阿斯達[처음 땅(神)]인 太白山에 들어가서 3월 15일에 한얼님께게로 돌아가시다.(歸天, 御天)<sup>11)</sup>

이처럼 우리의 祖上이며 開國者이신 檀君王儉은 神話가 아니고 실존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日本人은 檀君을 歷史事實로 보지 않고 神話로 다루려 했다. 그렇게 처리한 일본인들의 底意[숨은 뜻]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三國遺事 古朝鮮條의 기록에는

“昔有桓國 熊子桓雄……熊女者無與爲婚……願有孕，雄乃假化而婚之，孕生子，號曰 檀君王儉”으로 적혀 있다.

이 기록을 놓고 단군의 탄생을 말하는 데 있어 매우 엄청난 오해[또는 잘못된 해석]가 있었다. 이른바 ‘熊女’를 ‘암곰’으로 해석하여, 桓雄이 곰과 交合해서 檀君을 낳았다 하여, 우리들은 짐승인 곰의 후손이니, 곰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민족적 모독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단군조선의 기사가 씌어졌던 때는 우리 글자로 적을 수 있는 표기 수단이 없을 때다. 즉, 우리의 고유 글자가 없었기에 그에 해당하는 吏讀式의 漢字로 ‘곰’을 ‘熊’字로 적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熊女’라는 漢字를 뜻글자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곰녀’라는 소리글자로 읽어야 한다. 여기 ‘곰’이란 말은 우리의 古代에서는 天神의 對가 되는 地神인 ‘神’의 뜻으로 ‘神聖하다’는 뜻이

10) 단군의 기원 원년을 서기전 2333년으로 잡은 것은 ‘帝王韻記’의 원년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宋나라 ‘通鑑外記’의 紀年法을 적용한 것이라 한다. 한편 三國遺事에는 단군의 즉위년이 帝堯 50년 庚寅年으로 되어 있다.  
천관우(1987) 참조.

11) 安浩相(1967), 前掲書, pp.128~130. 참조.

다.<sup>12)</sup> ‘곰(곰)’이라는 발음을 表記할 방법을 찾던 古代人이 ‘곰 웅(熊)’자를 발견하여 적은 것이다. 그리고 ‘검’이 ‘갠-감-곰’으로 변하여 신라시대 이 두 표기로 행해지자 우리의 고유글자가 없었기에 그에 해당하는 漢字인 곰(곰) 웅(熊)자를 이두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 예는 지금도 일본에서 神을 ‘가미’라 하여 부르는데, 이는 옛날 우리말이 일본어에 흘러들어간 흔적으로 보는 說이 현재 지배적이다.<sup>13)</sup>

그리고, 우리말의 ‘하느님’은 ‘하늘+님’의 합성어로 된 순수 우리말의 神稱이다. 따라서 앞의 昔有桓國의 ‘桓國’은 곧 하느님의 나라이다. 여기 桓國은 하느님의 나라이고, 桓雄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하느님이시고, 熊女는 하느님 [환웅]과 결혼하여 檀君을 낳으신 어머니시다. 결국 단군은 地神인 熊女의 몸을 빌어 하느님의 피를 이어 태어난 地神의 神種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神인 나’와 ‘肉神의 나[人神인 인간]’라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檀君王儉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檀君世紀가 밝히고 있다. 즉 “단군왕검의 아버지는 환웅이고 어머니는 熊氏王의 딸이다”라는 기록이 있다.<sup>14)</sup>

그러면, 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인 단군을 실존 인물로 보지 않고 신화로만 다루어 오면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戰亂을 겪는 동안, 외침에 의해 수많은

12) 地神을 ‘곰’으로 발음했으리라는 방증은, 일본인들이 ‘神’을 아직도 ‘가미’라 발음하고 있으며, 아이누어로도 神이 ‘가뮌’로 발음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영검하다(靈驗하다)’의 ‘검’이나 ‘검줄(神索)의 ‘검’이나, 제단 앞에 까는 흙을 ‘검토’라 하여 ‘神土’라 적는 것은 아직도 ‘神’을 ‘검’이라 읽는 발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이기문(1986) 교수는 Karlgren이 일본어의 Kuma(熊)를 중국어의 熊(Yiung <giung <giwiong)에서 온 것으로 보고 한국어의 ‘곰’도 이들과 무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어의 ‘곰’과 일본어의 ‘구마(Kuma)’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14) ‘檀君世紀’는 공민왕 12년 紅杏村 늙은이가 溟雲堂에서 썼다고 되어 있으며, 桂延壽가 엮은 책이 ‘桓檀古記’인데 그 속에 ‘단군세기, 三聖記, 북부여기, 太白逸事’가 들어 있다.

임승국(1986), 前揭書, p. 356. 참조.

귀중한 문헌과 史料들이 없어지고 전소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上古史 부문에 대한 기록이 없어졌다. 게다가 스스로 우리 역사가 事大主義史家나 日帝植民地史家에 의해 가위질되었다.<sup>15)</sup>

둘째, 日帝植民地 政策으로 일본인의 한국 역사 말살정책과 우리의 上古史에 대한 왜곡·날조 및 은폐이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나 주체성을 말살하고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 소위 同根同祖, 內鮮一體를 구실로 내세워 문화 침략의 마수를 뻗기 시작했다. 日本은 한국의 역사를 뜯어 고쳐 일본이 한국을 통치·지배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한국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보다 1700년이나 더 오래인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한국인이 오히려 일본인의 祖上이 되겠기에 단군조선에서 위만조선 말까지의 역사를 잘라버리고, 일본 역사보다 4~5백년 뒤떨어지게 날조했던 것이다.

중 국	한 국	일 본
B.C. 2340(辛酉) { 堯 18~30 2328(癸酉)	檀君 1~6. B.C 2333 ~ 2328 (戊辰)(癸酉)	× ×
B.C. 300(辛酉) { 周報王 15~ 195	×	B.C.300(辛酉) 孝安 93~401 { 290(癸酉) 孝靈 1~15
B.C. 194(丙午) { 惠帝 8 殂 108	衛滿朝鮮, 단기 2140~2226	B.C.194(丙午). 孝元 21~
B.C. 157(甲申) { (漢)文帝 6 殂 99	× ×	B.C.157(甲申) { 開化 1~59 99
B.C. 57(甲子) ~ 3	(新羅) 赫居世 1~60. 단기 2277~2336	B.C.57~3 宗神 41~垂仁 32

※ 李鉉宗(1980), 東洋年表, 참조.

15) 그 예로 1910년 일제 침략 후 일제 식민지 정책에서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책들을 압수, 탈취하여 改造하거나 또는 소각해 버렸다. 이 때 조선총독부는 전국의 향교, 사찰, 서원, 서당, 宗家 등을 전부 →

위의 도표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역사적 근거가 있는 우리의 上古史를 신라 시조 혁거세의 건국 연대인 단기 2277(甲子)년 [B·C.57]부터 우리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그 이전의 역사인 단기 2276년 이전까지의 역사는 모두 잘라버린 셈이다. 그리하여 단군조선을 단군신화로 왜곡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역사적 근거가 있는 上古史料는 모두 거두어 불태워버린 후 근거가 매우 희박한 史書들만 남겨두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충렬왕 때부터 조선 영·정조 때까지의 御用史書 아니면 慕華事大史書 같은 책들만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들이 철저히 검열하여 남겨두었던 책들이 소위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문헌비고, 동국통감, 東史綱目, 東國史略, 東國輿地勝覽, 海東釋史 등이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意圖는 檀君 혼자서 1908세 또는 1500년을 살았다는 등 모호하거나 不分明한 내용이거나, 三國史記 같이 아예 단군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책들만을 남겨 놓음으로써 우리의 上古史를 찾는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역사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면서 악랄한 짓을 저질렀다. 즉, 일본인들은 우리의 上古史는 아예 말살하고 上古史 이후부터는 왜곡·날조하여 편찬했던 것이다.

세째, 그리하여, 일본은 우리 조상인 檀君을 神話上의 人物로 轉落시켰던 것이다. 일본인, 그들은 우리의 上古史 부문의 근거가 희박한 모호한 책들만 남겨놓은 다음 檀君에 대해 ‘神話’라는 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자, 오래되었다는 너희 나라 삼국유사를 보라, 단군조선은 한 페이지 반 밖에 없다. 단군 혼자서 1500년을 御國했다. 壽는 1908세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나, 이건 전설이고 신화이다. 또 帝王韻記를 보라. 혼자서 1208년 御國했다고 되어 있다. 그 다음 東國文獻備考,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048년으로 돼 있으며, 東國通鑑 東史綱目, 東國史略에는 10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수명이 1048세라고 했으며, 김부식이 지은 三國史記(1145년)에는 檀君이란 말이 한마디로 안 나오잖느냐, 그러니 神話이고 傳說일 수 밖에 없다”고 일본인들은

→ 뒤져 30여만권의 책들을 압수, 탈취하면서 검열했다. 이 30여만 가운데 日本보다 역사가 오래인 檀君과 衛滿에 관한 史書 약 20만권을 불태우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 때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37권 [본권 35권, 부록 2권]이 발간되었던 것이다.

내세웠다. 그리고 箕子 929년은 중국 문헌인 상서대전, 하은사기, 후한서 지리지에도 나오니까 부인은 못하지만, 箕子는 殷나라 사람이니 조선 역사에서 취급할 문제도 아니라면서 빼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衛滿朝鮮 87년이다. 그러나 위만은 燕나라 사람이니 조선 역사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까지 일본인들은 우리 역사를 가위질하며 왜곡·말살해 놓고, 조선의 진정한 역사는 B·C.57년 신라 박혁거세부터 시작한 것으로 날조해 놓았던 것이다. (앞의 李鉉淙/東洋年表, 참조).

하여간 일본은 이같이 우리 上古史에 관한 史料들을 전부 없애놓고, 檀君이 곰의 자식이라느니, 神話의 요소를 지닌 인물이니 하면서, 檀君이 實存 인물이 아닌 신화상의 인물인 것으로, 日本人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에게 철저히 교육시켰던 것이다.<sup>16)</sup>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인이 단군신화라 부르는 것도 이때 일제가 왜곡·날조해 놓은 것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데서 생긴 결과이다.

요즈음 ‘古朝鮮’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게 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檀君朝鮮, 衛滿朝鮮, 箕子朝鮮을 총칭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은 단군조선, 기자조선의 합칭으로, 혹은 단군조선만의 뜻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단군조선이 初期부터 국가였던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은 우선 “檀君朝鮮 초기가 적어도 청동기 단계였는가, 아니면 청동기 이전의 단계였는가”가 밝혀져야 하겠다.

일찌기 東方에는 ① ‘古朝鮮[檀君朝鮮]時代’가 오래 지속되다가, ② 古朝鮮이 쇠망하면서 그 諸侯國이었던 부여, 고구려, 신라, 삼한… 등이 독립하여 ‘列國時代’가 되고, ③ 列國 가운데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기 수백 세력을 통합하여 ‘三國鼎立時代’를 이루었다.<sup>17)</sup> 즉,

古朝鮮[檀君朝鮮]時代→列國時代→三國鼎立時代로 변천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記述로, 檀君이 始稱한 國名은 ‘朝鮮’이다. 그리고 檀君(王儉)은 神話上の 人物이 아니라 역사상의 실재 인물이며, 實存한 우리 겨레의 國祖이며 開國者이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 祖上을 지칭하거나 歷史를 時代區分하여 上古史를 말할 때는 ‘檀君’ 또는 ‘檀君王儉’과 ‘檀君朝鮮’[또는 古朝鮮]으

16) 金周鎬(1985), 왜곡된 단군신화, 불교사상 10호. 통권 23호.

李揆元(1986), 단군 성전 왜 못짓고 있나, 광장 10월호, 참고.

17) 千寬宇(1987), 古朝鮮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동아 통권 323호 참조.

로 해야지 ‘檀君神話’로 지칭해서는 절대 안 되겠음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민족의 밝은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또, 일본의 군국주의가 일제 시대 식민지 정책으로 우리에게 저지른 죄악을 본질적으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檀君에 관한檀君王儉,檀君朝鮮 문제는 올바르게 새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부터 ‘檀君神話’라는 말 대신에 歷史를 이룰 때는 ‘檀君朝鮮’이라 하며, 祖上을 일컬을 때는 ‘檀君王儉’이라 해야 한다.

즉, 檀君神話  $\begin{cases} \rightarrow \text{祖上: 檀君王儉} \\ \rightarrow \text{歷史: 檀君朝鮮} \end{cases}$

### 3. ‘李氏朝鮮, 李氏王朝, 李朝’의 용어 문제

일본은 1910년(순종3) 8월 22일에 한국 땅을 짓밟았다. 그 뒤부터 일본인들이 ‘李氏朝鮮’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李氏朝鮮’이란 이 용어는 李氏가 나라를 세운 일종의 部族國家로 보아 하나의 당당한 국가 형태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卑下시킨 말이다. 그리하여 ‘朝鮮’이라는 나라이름마저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일본인의 숨은 뜻을 모르고 우리가 ‘李氏朝鮮, 李氏王朝, 李朝’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 나라 역사에 무관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 역사를 부정하는 격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 ‘朝鮮’이나 ‘李朝’냐 할 때, 우리의 國號는 ‘李朝’가 아니라 ‘朝鮮’이다. 일본은 ‘李氏王朝, 李氏朝鮮, 李朝, 李朝時代’란 말을 쓰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자기 나라를 업신여기도록 만들어, 끝내는 자기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데 그 숨은 意圖가 있었던 것이다.

‘李朝’란 이 용어를 부르면 부를수록 제 나라를 스스로 업신여기게 된다는 효과를 노렸고, 그 꾀에 말려 들어가서 마침내 자기 나라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생겼다.

왜로들이 1910년(경술) 8월 22일에 조선 궁궐을 ‘李王宮’이라 하여 고종임금을 ‘李太祖’라 부르고, 순종임금을 ‘李王’이라 불러서 일본 귀족으로 흡수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안에 있던 도서검열과에서 문집, 초고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때 왜로들이 고치라고 한 것 중에 으뜸이 ‘我朝 朝鮮’을 ‘李朝’로 바



꾸면 허가해 주셨다는 것이었다.<sup>18)</sup>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高麗’도 ‘王氏高麗’ 또는 ‘王高時代’라 불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15C~19C에 이르는 동안 우리 거레가 지켜온 나라 이름이 ‘朝鮮’이었기에 그 시대를 일컬을 경우는 언제나 ‘朝鮮’ 또는 ‘朝鮮時代’ 내지 ‘近世朝鮮’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原國名 또는 國號는 단군 이래로 ‘朝鮮’이다. 우리는 이 ‘朝鮮’을 편의상 時代區分하여 ‘檀君朝鮮’, ‘衛滿朝鮮’, ‘箕子朝鮮’, ‘古朝鮮’, ‘朝鮮王朝’, ‘近世朝鮮’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고려시대 정자를 ‘고려 정자’라 하듯이, 조선시대의 백자를 ‘조선 백자’라 할 것이 아니라 ‘조선 백자’라 불러야 한다.

그리고 李氏朝鮮, 李氏王朝, 李朝, 李朝時代, 李朝語 등은 모두 朝鮮, 朝鮮王朝, 朝鮮朝, 朝鮮時代, 朝鮮語 등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 4. ‘日帝 植民地’ 용어 문제

‘植民’이란 말은 자기 나라 사람을 남의 나라 땅에 살게 한다는 뜻이다. 즉 남의 나라에 자기 나라 사람을 옮겨 심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植民地’라 하면 자기 나라 사람을 남의 나라 땅에 이주시켜서 자기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남의 땅을 많이 차지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일본이 이 땅에 일본 사람을 옮겨 심은 땅이 ‘植民地’이다. 이 植民地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서두른 것이 조선에다 일본말을 심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1876. 7. 6(고종19)에 일본말을 강요하는 約條를 만들었다. 소위 ‘일본말 강요 약조’이다. 이 약조는 ① 외교문서는 모두 일본말을 쓸 것이며, 그것을 漢文으로 번역하지 않는다. ② 일본 정부의 배는 항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종실록 上: 고종 13년 7월 6일>

그리하여, 日帝는 武力으로 우리의 국토를 빼앗고, 주권[정치]을 빼앗고, 경제를 예속시켜 착취하였다. 이러한 일본 군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우리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영구히 소멸시켜 버리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① 조선 민족 말살 정책과, ② 사회·경제적 수탈 정책에

18) 呂增東(1986), 前揭書, pp. 21~24. 참조.

중점을 두었다. 그 중 조선 민족 말살 정책이 日帝가 자행한 가장 악랄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하여 同根同祖, 內鮮一體를 구실로 내세워 '同化'라는 名目으로 同化政策을 써서 조선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 소멸시켜 그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헐값으로 노예처럼 일하는 소위 일본의 隸屬 賤民으로 만들려 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 우리 민족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선어 말살과 조선 문자 말살 정책을 강행하였다. 1910년부터 시작하여 일본어를 국어로 삼도록 하고, 1930년대에는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사용을 엄금하였고, 1937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의 조선어 사용을 금하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전용하도록 강요했다. 참고로 日本 군국주의의 日帝 植民地時代 政策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sup>19)</sup>

제1기[1876-1895]: 侵入友邦國時代, 참여정책 [약 20년]

제2기[1894-1906]: 侵略同盟國時代, 간섭정책 [약 10년]

제3기[1906-1910]: 侵略統監府國時代, 참여정책 [약 4년]

제4기[1910-1945]: 侵略總督府時代, 植民정책 [약 35년]

合計 69年

그리고, 우리는 '日本帝國主義'의 준말인 '日帝'란 말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

일본은 建元稱帝를 한 번도 못해 본 민족이면서 예로부터 天子國[皇帝國]임을 자처해 온 나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역사에 그 例證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 경기도 금곡에 있는 洪陵·裕陵이 그것이다. 이 두 陵은 高宗과 純宗의 王陵이다. 이 두 陵은 1897년 建元稱帝 이후의 것이기에 재래의 陵이 中國皇帝에 예속된 諸侯國의 君의 격식임에 반하여, 이 두 능은 皇帝[天子]의 격식에 준하여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그 규모가 유례없이 거대하다. 高宗보다 純宗의 陵이 더 크고, 재실, 침전, 문무, 동물들의 석상이 모두 엄청난 규모이다. 여기서 우리 민족사의 한 비애로운 장면을 볼 수 있다. 建元稱帝<sup>20)</sup>를 한

19) 金敏洙(1984), 國語政策論, pp.494~512. 참조.

20) 참고로 桓檀古記의 太白逸史 高句麗 本記에 실린 왕의 명칭과 연호를 보면 이렇하다.

고주몽성제 [동명왕] ————— 다물 — B.C.97~19

광개토경태열제 [광개토왕] ————— 영락 — A.D.391~412

번도 못했으면서도 皇帝國임을 자처해 온 日本人들 손에 의해 억지로 建元稱帝를 당하고, 그 허울 좋은 무덤 속에다 우리 조선 민족의 마지막 아기를 다 파묻었던 것이다. <김용옥(1985:244-245)>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안 이상, 우리는 ‘日帝’[日本帝國主義]’란 용어나,<sup>21)</sup> ‘植民地’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소위 ‘日帝, 植民地, 派出所, 氣台’ 등의 용어가 모두 일본 군국주의적 잔재다. 그러기에 ‘日帝植民地時代’란 용어 대신에 우리 쪽에서 본 ‘日本軍國主義時代, 倭政時代, 民族抗日日期’ 등의 말로 불러야 할 것이다.

## 5. ‘開化期’의 용어 문제

‘開化’<sup>22)</sup>라는 말은 큰 쪽이 작은 쪽을 흡수해버리는 경우, 큰 쪽이 작은 쪽 속이기 위하여 또는 큰 쪽의 침략 행위를 합리화해서 부르는 침략 용어다. 이 ‘開化’란 말은 두 나라 가운데 침략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침략 용어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다. 침략을 당한 쪽의 입장에서 그 말을 쓰게 되면 그것은 자기 멸망을 재촉하면서 야만임을 자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開化’라는 말에는 ‘야만’을 전제로 하고 과거와 현재를 일체 부정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과거와 현재를 야만으로 돌려서 그것을 일체 부정하는 파괴의식을 가지게끔 만든다. 그러기에 이 ‘開化’라는 말은 ① 역사의식에 대한 단절과, ② 現在 모습을 허물어뜨리는 파괴의식과, ③ 파괴된 곳[허물어진 곳]에 무엇인가를 새로 받아들여도록 同化意識을 강요하게 되는 세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침략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開化’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日本人 公使 大鳥

장수흥세호태열제 [장수왕] ————— 건흥 — A.D.413~491

문자호태열제 [문자왕] ————— 明治 — A.D.492~590

보장제 [보장왕] ————— 開化 — A.D.642~668

한단고기에는 이처럼 建元稱帝의 새로운 명칭과 年號들이 소개되고 있다.

21) 註 20)를 보더라도 김부식 이후 역대 사가들이 사대사상에 입각하여 우리의 역사를 모두 諸候國의 역사로 변조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大韓帝國’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다. ‘帝國’이란 약소국을 거느리는 強大國을 뜻하는 것임.

22) ‘開化’라는 말은 중국 晉나라 履凱之의 定命論에 그 출처가 밝혀져 있다.

圭介였다. 1894(갑오년) 6월 21일 새벽에 일본 군대를 이끌고 우리 대권을 침입한 大鳥圭介 公使는 김홍집을 영의정으로 삼고 함께 데리고 온 친일파 10여인을 요직에 안插는 작업을 했다. 그때 [1894.6.22], 大鳥圭介는 고종임금에게 “지금부터 開化하면 두 나라 사이는 이웃으로서 더욱 친하게 될 것이요, 그것은 지난날에 질출 바가 못될 만큼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고종실록 2권 p. 492] “일본식으로 나라의 법률제도를 바꾸는 것을 ‘開化’라고 하고는 그렇게 하면 조선나라는 억만년 뻗어나가게 된다”는 식으로 강요한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말은 곧 “너희들의 나라는 야만이기 때문에 그 야만스런 나라를 버리고 일본으로 들어오라”는 뜻이 된다. 또한 한국어면서 “우리들이 개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곧 “야만스런 우리 조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들어가자”라는 뜻이 된다. “개화하라”는 말을 왜놈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했던 것이고, “개화하자”는 말을 당시 친일파가 아니고서는 모라리 줄 수 없는 말이다.<sup>23)</sup>

사실 일본은 1894.6.21. ‘開化’라는 허울 좋은 말로 해외한 軍國務務處에서 조선법을 없애고 일본법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sup>24)</sup> 소위 甲午改革[甲午更張] 단행이 그것이다. 이는 1894. 7.5(음31) ~ 1896. 2.10(음32)의 약 19개월 동안 추진되었던 일련의 政變이다. 이때 군국기무서 주모하에 일본은 내정개혁안을 제시하여 궁중에 내입하여 閔氏 정권을 타도하고 흥진과 김홍집을 영입하여 新政權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69년간의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묶어 놓고, 우리 민중을 文盲人 취급을 하였던 것이다. 李致淳(1980)의 東洋年表에서 韓·中·日 三國을 비교해 볼 때, 주목되는 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이전 [금년 기준으로 2145년(=1988 +157)]에 開化되었다는 점이다.

한 국	위만조선, 단기 2177 ~ 2235 ~	B.C. 157 ~
중 국	(漢) 文帝 6 歿 ~ (漢) 武帝 ~	B.C. 157(甲申) ~ 99(壬午)
일 본	開化 1 ~ 59년	B.C. 157~99

이처럼 ‘開化’란 用語는 일본인들이 의하여 전격적 강요되었던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開化期’라 하여, 이 開化 이전의 수백 년을 통해 이루어진 찬란한 우리의 문화적 성취는 볼 줄 것으로 단정시키려하고, 開化 이후의

23) 呂增史(1986), 前掲書, pp.124~125. 참조.

24) 李致淳(1980), 東洋年表의 甲午, p.31. 참조.

역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려고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한국 근세 민족사의 최대의 비극이며, 이러한 각도에서 殖民地史의 비극을 새롭게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開化派 지식인들은 日本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들을 오히려 자기 반성의 계기로 혹은 자기 비판의 자학적 탄식으로 받아들였다.<sup>25)</sup>

그러기에 張志淵은 周易의 ‘自強不息’을 빌어 ‘是日也放聲大哭’을 써서 自強論을 역설했고, 1903년 8월 12일 張錫龍은 ‘自強不息’에 대한 疏를 올린 바도 있다. <고종실록 3권 p.292>

그런데, 우리말에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잘 해보자는 뜻으로 ‘自強(自疆)’( 스스로 힘써서 마음을 가다듬음)이란 말이 있다. 우리는 이 ‘自強’이란 말을 살려서 1894(甲午)년 이후의 해당 시기를 일컬을 때는 ‘開化期’란 말을 버리고, ‘自強期’ 또는 19세기란 말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즉, “開化期→自強期, 또는 近世(代) 轉換期, 19세기”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開化’가 들어간 ‘開化期, 開化派, 開化期 小說’ 등의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 6. ‘解放’의 용어 문제

우리들은 1945.8.15(乙酉年)의 ‘解放’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解放’이란 말은 일본 군국주의의 殖民地政策에서 朝鮮(한국)을 묶어 놓고(구속했다가) 1945년 8월 15일이 되자 마지못해 朝鮮人(한국인)을 풀어준다는 데서 즉, 解放시켜 주었다는 데서 日本人이 사용한 용어이다. 이는 마치 죄수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석방시켜 준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마지못해 우리를 구속의 몸에서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이다. 마치 죄인이나 노예를 풀어준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解放’이라는 용어를 만든 주체는 일본인이다. 그러기에 ‘8.15. 解放’이라는 용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못마땅한 것이다. 우리 측에서 볼 때는 ‘解放’이 아니라 ‘光復’이 되는 셈이다. ‘光復’이란 말은 得光於國土恢復(잃었던 국토를 되찾

25. 金容沃:1985,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p.30, 참조.

게 되어서 캄캄했던 세상에 빛을 얻게 되었다)의 뜻이다. 이 ‘光復’이란 용어는 上海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1936. 6. 8~1944. 3)에 소속된 ‘光復軍’에서 시작되었다. 이 광복군의 승리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된 셈이다. ‘解放’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 민족을 無力化시킬 뿐이며, 잠시 그 순간의 기쁨 밖에 주지 않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어찌 ‘해방’을 피동적으로만 받아들였는가? 우리나라는 그 당시 떳떳하게 光復運動을 벌였고, 일본에 대해 끈질긴 민족저항운동도 벌였다. 좀 더 힘있고 당당하게 주장한다면 한국은 日本의 戰勝國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解放시켰다는 말인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 땅을 되찾게 된 영광이 왔다는 뜻에서 ‘光復節’로 기념하지만, 일본인들은 이 날을 ‘敗戰差恥日’로 여겨 슬퍼한다고 한다.<sup>26)</sup> 이렇게 볼 때 ‘解放節’이란 말은 어색하며 성립되지도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할 것은, 1985년 8월 15일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말할 때는 반드시 ‘光復’이라 해야 하고, ‘解放’이라고 말함은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의 뜻으로 쓸 때는, ‘解放’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1985년 8월 15일을 흔히 ‘8.15.解放’으로 말하는데 이는 마땅히 ‘8.15.光復’으로 일컬어야 한다.

## 7. ‘6.25. 動亂[事變]’의 용어 문제

우리는 1950년(庚寅年) 6월 25일의 역사적 사건을 일러 흔히들 ‘6.25.事變’이니 ‘6.25. 動亂’으로 불러 왔다.

‘事變’이란 ‘조그마한 變動’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1950. 6. 25에 북한 괴뢰군이 남침하여 사람을 죽이는 동족상쟁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같은 중대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事變’이라 하면 격에 맞지 않는다. 이 중대한 사건을 흔히 우리는 일본식의 용어인 ‘6.25. 動亂’이니 ‘6.25. 事變’으로 써 왔다. 이는 잘못이다. 역사적 사건을 이름짓는 데 있어서는 그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26) 呂增東(1986), 前掲書, pp. 114~115 참조.

在日 교포 중 어느 한 일본인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놓고 그에 맞추어 주체자 중심의 용어를 지어야 하고, 또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다.

이 날은 실은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 것으로 北韓 南侵日이 된다. 그리하여 전쟁이 되었다. 그러니 1950.6.25은 '6.25.전쟁' 또는 제3자 측에서는 '한국전쟁'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動亂'은 日本式 한자어이며, 韓國式 한자어는 '亂動'이 된다.

앞으로는 '6.25.動亂', '6.25.事變'이란 말은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으로 바꾸어 불러야 할 것이다.

## 8. '派出所'의 용어 문제

'派出所'란 말의 뜻은 '경찰서 소재지 안의 지정된 관할 구역의 치안을 맡아 보는 巡警이 파견되어 있는 곳(이회승, 국어대사전)'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뜻으로 굳어져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다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파출소'란 이름도 실은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에게 남겨준 산물이다. 倭政時代 일본 군국주의가 軍國機務處를 두어 이 땅에 왜군 헌병들을 파견하여 전국 곳곳의 정보망을 보호 감시하며, 일본 본국에 諸般 사항을 보고받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派出所'이었다. 현재 일본에서도 '○○○派出所'란 간판이 적혀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1987.2.26(토)자 동아일보의 <독립운동 새 자료 찾아>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당시 만주 安東에는 임시정부(상해)의 연락 책임을 맡은 交通局과 財務派住所가 설치돼 있어 국내로부터 자금의 모금과 애국지사 규합 등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만주 안동의 임시정부 財務派住所 宋삼사에게 맡겨 놓았다.”

등에서 '派住所'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용어는 그 당시 광복군인 우리 한국인이 사용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군국주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파출소'란 용어 대신에 우리 한국인이 쓴 '派住所', '駐在所' 또는 '民生所'란 말로 바꾸어 사용했으면 어떨까 한다.

## 9. '母國語'의 용어 문제

'母國語'란 말도 일본 군국주의가 만든 소위 日帝 植民地 時代의 所産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선어 말살과 조선어 문자 말살 정책을 강행하였다. 1910년부터 시작하여 일본어를 국어로 常用하도록 하고, 1930년대에는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사용을 엄금하였으며, 1931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의 조선어 사용을 금하고 일본어를 母國語로 전용하도록 강요하였다.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는 우리 국민에게 국가 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統治·支配하기 위해 일본군국주의가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母國語'란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이며 어머니가 아니다. 모든 권리를 국민이 아닌 국가가 쥐고 통치 지배하던 그 당시 일본 군국주의는 '母國語'란 말이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말을 처음 배울 적에는 어머니한테서 배우지, 국가로부터 배운 사람은 없다. 국어 시간을 통해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표준어, 철자법, 정서표기법 등 규범문법의 국어를 배운 것이다. 흔히 'mother tongue'를 '母國語'라 번역함은 잘못이다. 이는 '母語'로 번역해야 옳다. '母語'란 바로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운 엄마말이란 뜻이다. (김용옥, 1986 : 25~27, 참조)

이제,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의 용어를 버려야 하겠다. 그리하여 '母國語→母語(mother tongue)'로 바뀌어져야 한다.

일본은 이상과 같은 용어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관동대지진 때의 한국인 학살 사건, 강제 징병 등에 관한 인력 수탈 문제의 왜곡, 신사참배, 여자 정신대 징발, 징용, 공출 헌납, 토지 약탈, 일본어 강제 교육, 조선어 사용 금지 등 30여개의 크고 작은 항목에 걸쳐 우리의 역사를 왜곡, 은폐, 날조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日本 軍國主義의 植民地政策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때 일본은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 意圖的으로 우리 역사를 날조, 은폐, 誇張, 美化, 歪曲시켜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900여회의 國難(外侵)이 있었는데 그 반수 이상이 일본의 침략 위협의 분탕질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본질은 '征韓論'('征'字는 옳은 것을 위해서 나아가서 친다는 뜻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식민지시대 전후에 일본은 한국의 각 방면에 걸쳐 간교하게 침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용어를 쓰지 않았다. 그 대신 保護, 監督, 後援, 改革, 更張, 開化 등의 간접적인 표현 방식의 용어를 썼다. 이밖에도 많은 용어들이 있다. 그리고 日本의 한국에 대한 日帝 植民地 政策의 특징은 ‘한국민족의 말살 정책’에 있었다고 한다. 民族이란 “인간의 언어, 지역, 혈연, 문화, 정치, 경제, 역사를 공통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공고히 결합되어 민족의식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굳게 결합된 역사적 범주의 인간 공동체이다.” 이들은 민족 구성의 요소들이다. 일제는 1910년 무력으로 한국을 침략하여 強占하고, 韓民族의 民族 구성 요소를 소멸시킴으로써 한국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日帝는 무력으로 韓民族의 國土(지역)를 빼앗고 주권(정치)을 빼앗아 소멸시켰으며 경제를 예속시켜 빼앗고 착취하였다.<sup>27)</sup>

### Ⅲ.

3.1. 以上에서 살펴본 ① 韓半島, ② 檀君神話, ③ 李氏朝鮮(李朝), ④ 日帝 植民地, ⑤ 開化期, ⑥ 8.15. 解放, ⑦ 6.25. 事變(動亂), ⑧ 派出所, ⑨ 母國語 등의 용어들이 우리식의 용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용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러한 일본식 용어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온 탓은 일본의 식민지 사학이 남긴 殘滓이며, 일제 식민지 교육의 탓이기도 하다. 일본은 가급적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왜곡·은폐·날조하며 때로는 美化하여 우리 국민을 속여 왔고, 또 그런 역사들을 잊게끔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일본인의 그 간사한 계략에 말려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古朝鮮의 연구와 우리 국어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했던 것이다. 사실 우리의 국어 연구(교육)는 일제의 침략과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한때 단절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만주침략(만주국 건설)과 조선어 말살 정책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7) 李炫熙(1986), 日教科書 歷史歪曲을 고발한다(上, 中, 下).  
 愼鏞廈(1986), 日帝 植民地 時代의 遺産, 신동아 통권 323호. 참조.

3.2. 우리 역사에서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정신이 요구될 때마다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인식이 새로왔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倭政 때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려다가 옥고를 치른 분들의 정신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은 69년간의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며 남은 찌꺼기의 용어들을 一掃하거나 拂拭해야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제 부더라도 우리는 투철한 그리고 정확한 우리의 국어 의식과 역사 의식 내지 민족의식을 갖고 독자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국어를 재조명하고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버리고 우리말식 용어로 고쳐 사용해야 하겠다. 그러기에 앞에서 다룬 용어들은 개념 규정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져야 한다.

① 韓半島 → 大韓民國

② 檀君神話 ↲ 祖上: 檀君王儉  
                                    歷史: 檀君朝鮮

③ 李氏朝鮮(李朝) → 朝鮮時代, 朝鮮

④ 日帝 殖民地 時代 → 日本軍國主義時代, 倭政時代, 民族抗日期

⑤ 開化期 → 自強(疆)期

⑥ 8.15 解放 → 8.15 光復

⑦ 6.25 事變(動亂) → 6.25 戰爭, 한국전쟁.

⑧ 母國語 → 母語.

3.3. 우리는 지금까지 다룬 용어들을 아무런 비판과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들 용어들은 너무도 뿌리깊게 언어의 사회성을 획득하고 있어서 쉽사리 고쳐지기가 어렵다. 本稿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바뀌어져야 할 용어로 사용하지 못하고 慣行대로 記述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日本式 용어들이 갖는 개념이나 그 뜻[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았으니, 지금부터라도 後世를 위해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쳐 우리의 참된 국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한국인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국민의 정신과 民族魂을 품고 참된 국어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 參 考 文 獻

- 姜信沆(1983), '外來語의 實態와 그 受容對策', 韓國語文의 諸問題, 一志社.  
 國語學會(1984), 국어학 제13집, 국어학회.  
 金敏洙(1984), 國語政策論, 塔出版社.  
 金容沃(1985),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1986), 여자란 무엇인가, 통나무.  
 金周鎬(1985), '왜곡된 단군신화', 불교사상 통권 23호.  
 朴甲洙(1984), 우리말의 誤用과 醇化, 한국방송사업단.  
 朴成壽(1980), 독립운동사 연구, 창작과 비평사.  
 朴殷植(1946), 韓國痛史, 三乎閣.  
 宋 敏(1984), '국어학과 일본어학의 술어대비', 국어학 제13집, 국어학회.  
 愼鏞廈(1986), '日帝植民地時代의 性格과 遺産' 신동아통권 323호.  
 申采浩(1948),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申滢植(1981),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安浩相(1967), '檀君王儉의 來歷과 그 理念', 현대문학 통권 155호.  
 呂增東(1986), 韓國歷史用語, 時事文化社.  
 李光來譯(1987), 말과 사물(미셀 푸코著), 민음사.  
 李揆元(1986), '단군성저 왜 못짓고 있나', 광장 통권 158호.  
 李基文(1986), '借用語 研究의 方法',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李基白(1973), 韓國史新論, 一潮閣.  
 李佑成, 姜萬吉(1979), 韓國의 歷史認識(上·下), 창작과 비평사.  
 李鉉淙(1980), 東洋年表, 探究堂.  
 李炫熙(1986), '日教科書 歷史歪曲을 告發한다(上→中→下)', 동아일보 1986.  
 7.14~16. 기사.  
 李熙昇(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임승국(1986), 한단고기 번역 주해, 정신세계사,  
千寬宇(1987), '古朝鮮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동아 통권 332호.  
허 응(1981), 언어학, 샘문화사.  
三國史記, 金鍾權譯, 先進文化社, 1960.  
三國遺事, 崔南善, 三中堂書店, 1946.  
桓檀古記, 桂廷壽編著, 필사본.